

# 廣州李氏會報



<p><b>遁村先祖 庭訓</b> 둔촌선조 정훈</p>	<p>讀書可以悅親心 독서가이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p> <p>勉爾孜孜惜寸陰 면이자자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p> <p>老矣無能徒自悔 노의무능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p> <p>頭邊歲月苦駸駸 두변세월고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p>	<p>遺子滿籩金 유자만빈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주다해도</p> <p>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p> <p>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p> <p>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p>
-----------------------------------	---	---



## 대중회 2017년 신년교례회 개최

광주이씨 대중회(도유사 재진)는 지난 1월10일(화요일) 오후6시 대중회 지하회의실에서 2017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시국사정으로 정·재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치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나, 응래, 해재 전 대중회도유사를 비롯한 원로 어르신들과 각 지파 도유사, 대중회 임원, 지역총회 및 단체대표 등 전국경향각지에서 70여명의 종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주요 인사로는 종구 의원, 수담 전 의원, 수구 전 한국국제보건료 재단 총재께서 참석하였다.

교례회의는 국민의례를 마치고 먼저 참석인사 소개와 원로님들의 신년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재진 도유사 인사, 축하떡 절단 및 건

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건배를 마치고 준비된 뷔페만찬으로 오랜 시간 덕담을 나누며 축제와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재경화수회 신년교례회 개최

재경화수회(회장 재진)는 지난 1월16일(월) 오후6시 대중회 지하회의실에서 2017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영하 5℃를 밀도는 추운 날씨였지만 재진회장과 각 지파 도유사들을 비롯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올해 96세의 복재 어르신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교례회에서 재진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고 인사를 한 다음 “닭의 해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특히 붉은 닭이 상징하는 것은 더욱 힘찬 출발을 예약 합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 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되면 다 지나가니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가 우리 廣李문중에 귀중한 한해가 될 것”임을 말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가족

이니 함께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다음은 복재 응께서 “작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다음해에도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며 “앞으로 재경화수회는 집행부와 각계 간사가 잘 협력해서 전국 대동화수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해 주

었다.

이어서 주요무형문화재 29호 이응관선생의 배뱅이굿 전수자인 현채(암탄공파 19대손) 현종이 신년마지 복을 빌어주는 “비나리”를 들은 다음, 떡절단식과 회원모두의 힘찬 건배를 외치며 준비된 식사(뷔페)로 화합과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재경화수회 총무 총교 기 -



## 광릉부원군파 중회 소식

### ■ 광릉부원군파 중회 신년교례회

광릉부원군파 중회(도유사 종선)에서는 1월 12일(목요일) 명일동 중회사무실에서 종선 도유사를 비롯한 각 공계 대표 및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광릉부원군파 중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문수 총무유사의 진행으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선조님에 대한 묵념을 드린 후 참석종인 소개와 도유사 인사, 정유년 신년 덕담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종선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종인 한분 한분께서 종사에 큰 관심과 협조로 중회의 숙원사업이던 파보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이외 중회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무난히 완수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금년 한해도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빈다."며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병준 前 도유사, 용훈 前도유사, 정래 안산중회장, 윤래 포천이곡중회장, 종길 화수회장 등의 순서로 인사와 덕담이 이어졌다. 이후 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재 음식점 "해물한상"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새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 광릉부원군파 중회 화수회 신년교례회

광릉부원군파 중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1월20일(금요일) 종길 화수회장을 비롯해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화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 하였다.

문수 화수회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선조님에 대한묵념, 회장인사, 도유사 인사, 경과보고, 회원소개와 인사, 보학 강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종길 화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님들께서 화수회에 큰 관심과 물심양면으

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화수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며 2017년도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종선 도유사의 인사와 화수회원 한분 한분의 인사와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끝으로 문수 총무로부터 5군의 넷째이신 광원군(휘 극돈) 할아버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자리를 중회 인근에 위치한 "황금오리" 식당으로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드리며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장시간 덕담과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광릉부원군파 중회 총무 문수記 -



## 2017년도 광천부원군파 중회 신년하례회



광천부원군파 중회(도유사 성호)는 2017년(丁酉年)도 신년하례회를 1월5일(목) 천호동 "드마

리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하례회는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아 중회 고문님들과 지역 중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종인들이 참석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새해 첫 행사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으며, 또한 잊혀져가는 우리 조상님들의 일을 되살리고 지켜 가고자 하는 우리 중회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문중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선조님들의 큰 뜻을 기려 명문집안의 자손으로서 품위를 잘 지켜 부끄럼 없는 중회를 후손에게 물려

주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성호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사업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및 비전을 제시하고 "중회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이어서 각 지역 중회장의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참여하신 종원들과 즐거운 오찬을 함께 나누는 다음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 광천부원군파 총무유사 종두 -

## 광원군 신년 교례회 개최

광원군파 중회(도유사 옥재)에서는 2017년(丁酉年) 1월11일(수요일) 11시30분 새해를 맞아 방배동 중회사무실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교례회에는 九旬을 훌쩍 넘기신 호은 복재 고문, 송천 응래 고문을 비롯하여 보성, 순천, 광주 등 경향각지에서 원로님들과 50여 종원들께서 참석하였다.

국민의례를 마치고 합동으로 축복기원 인사를 나누는 다음, 참석종인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개를 마친 옥재 도유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종인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고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여러 원로님들의 인사와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축하케익 절단식과 참석인 모두의 힘찬 건배를 끝으로 신년교례회의를 모두 마치고 차려진 뷔페성찬을 나누며 정답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겁고 단합된 시간

을 가졌다.

- 광원군파 중회 총무유사 결재 -



# 관찰사공 중회 “묵은세배” 행사 가져

“묵은세배”는 한자어로는 ‘구세배(舊歲拜)’라고 한다.

「동국세시기」에는 “조신(朝臣) 2품 이상과 시종신(侍從臣)들은 제석(除夕: 음력12월 말일)에 대궐에 들어가 묵은해 문안을 올렸다. 사대부집에서는 사당에 참례한다. 또, 연소자들은 친척 어른들을 찾아서 문안하는데 이를 묵은세배[舊歲拜]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배라고 하면 설날에 새해의 첫인사로만 알고 있으나 묵은해를 보내는 한해의 마지막 날에도 한해를 무사히 보냈음을 알리고 한해를 아무 탈 없이 지냈음을 조상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예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당이 거의 없어져서 이러한 사당제는 찾아보기 어렵고, 묵은세배 또한 지금

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믐날 낮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 성묘를 하는데, 이도 역시 묵은세배에 해당된다. 또, 집에서 어른에게나 일가친척에게도 묵은세배를 올린다.

대소가가 많을 경우, 세밑에는 바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난 다음 밤늦도록 묵은세배를 다니는 일도 있다. 노인·어른들은 의관(衣冠)을 단정하게 하고 묵은세배 오는 사람을 기다려 맞이한다. 묵은 세배꾼이 많이 찾아오는 종가에서는 밤에도 사당에 불을 밝혀 둔다.

우리 관찰사공 중회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잊혀진 세시풍속 중 “묵은세배”를 하기로 하고 1월24일(음력12월27일) 오전에 중회 고문님들을 모시고 관찰사공, 참판공, 좌통례공파 도유사님과 총무유사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처음 묵은세배를 드

리는 행사를 가졌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다음해부터는 좀더 준비를 잘 해서 격식에 맞춰 시행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 좌통례공파중회記 -



## 送舊迎新의 私考



송구영신이란 말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조 관에서 送故迎新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구관을 보내고 新官을 맞이했던 데서 由來된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도 76여년을 살면서 병신년도 부질없이 한해를 넘기고 정유년 365일도 뜻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 1월1일 해돋이 구경을 한답시고 산으로 바닷가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새해 첫날 뜨는 해는 어느 해와도 변한 것 없고 똑같은 모양이고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는 해나 지나간 해가 그해가 그해인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면서 무엇인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얻고자 의지하는 마음의 발로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여러 길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하는 노력의 방향이 길에 따라서 길흉화복의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새해 첫날에는 영전이나 출세를 염원하는 이나 일반 국민들은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빌며 또 각자 입장에 따라서 간구(懇求)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진리의 길, 참된 길, 바른 길 바탕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끝은 복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권력과 금력이 지대한 위치에 있을 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길인지 진리에 어긋난 것이 아

닌지 분별력을 잃고 이에 반하면 대통령의 명에도 최순실 게이트처럼 비참하게 나라에 떨어지고 온 국민에 엄청난 피해와 나라 살림이 도탄에 빠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작당한 사람의 위치에 따라 정도(程度)의 패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새해 해돋이를 보면서 비는 정성에 승화(昇華)되어 모두가 새해 아침에는 어디에서나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 진리의 길을 찾고 덕과 선을 베푸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마음으로 바뀌어 실행하면 꼭 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다짐하는 정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광된 받은 복은 진리의 길 옳은 길 덕과 선을 쌓는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많은 노력으로 얻어지며 고진감래라는 말과 같이 그 끝에는 큰복과 행운이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확신합니다.

명심보감에 子曰 僞善者는 天報之以福하고 爲不善者는 天報之以禍니라 는 말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같다면 무엇이 겁나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렇게 화합된 국력은 엄청난 가치와 힘이 됩니다. 세계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國力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福이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쌓은 행의 실적에 따라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自利他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옳은 일 바른 일하면서 모든 권력과 금력의 탐심을(貪心) 버리면 뒤탈도 후회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성현(聖賢)의 말과 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은 노력의 대가의 복과 항상 기쁜 삶을 영

위하고 자손대대로 복을 누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구태를 깨끗이 혁신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다하는 기도의 정성뿐입니다.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5,000만 국민 가운데 절반이 믿음을 가진 신도가 있으며 그리스도교, 천주교 불교 등등 많은 신도들이 통일을 위한 소망의 기도, 새벽의 기도, 정치 안정을 위한 구국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 힘에 이 나라가 이만큼이나 유지되고 있음은 과장이 아닙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국운의 융성을 희망한다면 기도의 힘이 이루어져 부정부패 당파 권력싸움이 사라져 참된 진리와 선하고 올바른 지식의 힘이 온 나라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오랜 세상풍파를 지나오면서 얻은 진실로 경천애국(敬天愛國)의 길이란 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오롯한 진실의 글이라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 다 채우지 못함을 느낍니다.

- 2017. 1.14 이종진 씀 -



# 遁村先祖 이후의 역사(53)

이 면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譜學을 上代로부터 계속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 廣林君 兵曹參判公 (諱 廷立) 行狀 (廣陵府院君 5代孫)

정립(廷立), 회성군(회 시무)의 장자로 字는 자정(子政)이고 호는 계은(溪隱)이시며 명종 11년 丙辰(1556) 8월8일생. 公은 11세 때 최립(崔昱)에게서 한서를 배우는데 최선생이 항상 칭찬이 자자하였고 13세 때 글을 지어 박순(朴淳)에게 보였는데 크게 놀라며 公이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사대부까지 「이가에 문아가 있다」며 보기를 원하였다.

선조9년 병자년(1576) 21세에 생원시에 급제하고 선조13년 경진년(1580) 25세 때 문과 별시에 한음 백사와 같이 급제하였으며 공이 수찬으로 있을 때 선조가 말하기를「근일에 통감강목을 강의코저 하니 나이가 젊고 재주가 총명한 신하 몇 사람을 천거 대비하라」하였다.

왕명(王命)이 내리자 조정(朝廷)에서는 천거할 사람을 뽑으려 할 때 마침 대제학으로 있던 율곡이 이덕형 이항복 이정립 세 사람을 천거하였다. 이 세 사람은 곧 사가 독서케하니 이때부터 세칭 삼학사(三學士)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 공은 이조정랑(吏曹正郎) 응교(應敎) 전한(典翰)에 보직되어 직제학(直提學)으로 올랐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왕이 서로 행차하여 송도에 머물렀으나 전황이 불리하게 되자 다시 금교에 이르매 공이 앞으로 나와 가로대「종사의 위판 이 아직 송도에 있습니다」하였다. 왕은 곧 공을 이조참의로 발령하고「공이 가서 받들어 오라」하니 공은 즉시 말을 달려 송도로 향하였다. 이때 주민들이 이르되「적병이 이미 침입하고 있으니 공연히 죽을 뿐이다」라고 만류하였으나 공은 돌아보지도 않고 곧 성안으로 가서 목주를 싣고 급히 평양으로 가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계급을 올려 이조참판으로 삼았다. 공이 다시 중전과 동궁을 뒤흔고 곡산에 이르렀을 때에 공은 부모상(일일육상)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복을 벗은 후 다시 소환 되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황해감사(黃海監司)에 제수되었다. 공은 란을 치른 직후인지라 우선 지방의 효자열녀와 여러 수훈을 세운 장병 등을 상세히 조사 조정에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도 질서가 문란한 관계로 탐관오리가 들쭉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공의 행장에는 책뿐이었다. 그래서 유서애(柳西厓)가 비변사(備邊司)로 있을

때 말하기를「재주있는 사람은 얻기 쉬우나 공과 같이 청백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였다. 공은 율곡 우계 문하에서 학문 닦는 방법을 배웠으며 사리사욕이 없었고 독서와 저술에만 전심전력하여 식사를 잊을 때가 많았다 한다. 공은 대사성 병조참판에 이르렀으며 임진왜란 호종훈과 평란훈공으로 공신 광림(廣林)군에 봉해졌으며 선조 28년(1595)을미 향년 40세로 여산(礪山)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증직은 영의정에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으로 내려졌고 협책편난으로 책록되었다. (선조己丑:1589) 공의 저서로는「계은집(溪隱集)」이 있다. 배위는 정경부인 전의 이씨이며 자에 玄聘(현자담) 元聘(원자담) 眞聘(진자담) 삼형제이고 묘는 암사동 산12-1 갑좌(甲坐)에 모셔 계시다.

## 廣林君 兵曹參判諡 文僖公(諱 廷立) 墓碑銘 (國譯)

庚戌年에서부터 辛卯年까지 十年 사이에 새로 조정(朝廷)에 나간 사람으로 친구가 三人이 있으니, 발자취를 같이하고 어깨를 견주며 글로써 서로 모이고 도(道)로써 강론(講論)하는데 그 한 사람은 이상공 명보 한음(李相公 明甫 漢陰)의 字요, 또 한 사람은 이참판 자정 광림군(李參判 子政 廣林君)의 字이요, 또 한 사람은 나로서 같이 선종(宣宗)을 섬기니, 세상에서 삼학사(三學士)라 하였다. 하루는 내가 자정(子政)에게 지나다가 우연히 그 인간성(人間性)의 장단(長短)점을 가리며 이 世上에서 잘 모르는 것을 말했더니, 子政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말하기를「神인가, 어떻게 내 일을 잘 가려내는가」하였다. 이것은 내가 子政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서로 쳐다보고 웃으며 말하기를「우리 두 사람은 참으로 지기지우(知己之友)로다. 다른 날에 내가 먼저 죽으면 자네가 묘지문(墓誌文)을 쓰고 자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자네의 墓誌文을 쓰기로 하고 서로 잊어버리지 말기로 하자」약속했었는데, 그 후 乙未(1595)년에 나이 四十으로 여산(礪山)에서 객사(客死)를 하니, 上께서 삼도(三道)에 命을 내려 호상(護喪)을 하여 광주(廣州)에 있는 선인(先人)의 묘소(墓所) 아래 장례(葬禮)를 지냈다. 그後 二十年이 지나 금상 칠년(今上 七年)되는 계축(癸丑)에 크게 공

신(功臣)을 봉(封)하였는데 원종(原從)했던 모든 신하들이 다 계급(階級)을 올리게 되어 예(例)에 따라 영의정(領議政)의 증직(贈職)을 받으니, 그의 아들 현담(玄聃)이 행장(行狀)을 가지고와 나에게 주며 명(銘)을 부탁하였다. 이해에 명보(明甫)가 죽으니, 내가 울며 말하기를「어찌하여 수(壽)를 하지 못하고 두 친구가 다 죽고 나만이 남아서 연달아 두 집안의 지문(誌文)을 쓰는 일을 보게 되니, 나도 또한 사람이라 그 차마 못할 일이 로다」李氏는 광주대성(廣州大姓)으로서 그 시조(始祖)에는 휘집(諱集)이라는 분이 있는데 탁월(卓越)한 큰 절개(節概)가 있어서 포은(圃隱)과 목은(牧隱)과 특별히 좋은 벗으로 삼았다. 일찍이 요승(妖僧) 신돈(辛旽)의 부도(不道)한 행동(行動)을 나쁘다고 했더니, 旽이 죽이기를 꾀하므로 부친(父親)을 업고 南으로 내려가 영천(永川)에 숨어서 自己 號를 둔촌(遁村)이라 하였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 아들 지직(之直)이 소도지변(昭悼之變)을 당(當)하여 말고삐를 잡고 두드리며 간(諫)함으로 크게 이름이 났었고 그 아들 인손(仁孫)은 우의정(右議政)이요 그 아들 극배(克培)는 영의정(領議政)이요 회손(會孫)에 이르러 이건(以乾)은 유곡찰방(幽谷察訪)으로서 증좌승지(贈左承旨)요 휘시무(諱時茂)를 낳으니,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로서 조용하고 깨끗하며 글 읽기를 좋아하고 남과 교제하기를 삼가며 고사전(高士傳)에 이름이 뛰어났다.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증직(贈職)을 받았으며 종실 의원군 역(宗室 義原君 億)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가정병진(嘉靖丙辰)에 자정(子政)을 낳으셨는데, 子政을 낳은 뒤 아씨(阿氏)가 病들어 젖을 먹일 수 없으므로 한 비복(婢僕)이 안고 외가(外家)에 데려다 두었다. 四歲에 어머니에게 돌아오니 하는 행동(行動)이 보통아이와 달라서 한 집안이 기특히 생각하였다. 十一歲에 한서(漢書)를 최사문립(崔斯文昱)에게 배우는데 昱이 항상 당세에 제일류(第一流)라고 칭찬(稱讚)하였다. 十三歲 때 삼도부(三都賦)를 가지고 박사암순(朴思菴 淳)에게 보이니, 思菴이 크게 기특히 생각하였다. 그 後 이름이 크게 떨쳐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李氏집에 문장아(文章兒)가 있다고 하니,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모두 한번 보고싶어 했다. 丙子年에 성균관(成均館)에 올라가고 庚辰年에 과거(科擧)에 올라 의정부(議政府)에 뽑혀 들어가고 辛巳年에 사관(史官)으로 천거받고 壬辰年에 승진하여 예조좌랑(禮曹佐郎)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병조

좌랑(兵曹佐郎)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을 역임(歷任)했다.

그때에 울곡(栗谷)이 마침 전문형(典文衡)이었는데, 어느날 경연(經筵)자리에서 선종(宣宗)의 말씀이「근일(近日)에 훈의강목(訓義綱目)을 강의(講義)하고자 하는데 年少하고 재주 있고 총명한 신하 몇 명만 뽑으라. 내가 미리 내장(內藏)된 어질(御稔)을 주어서 강독(講讀)하게 해서 고문(顧問)으로 삼고자 한다」하는 명령(命)이 내리니, 조정(朝廷)에서 눈을 씻고 자세히 살피었다. 이때 울곡(栗谷)이五人을 천거(薦擧)하니, 명보(明甫)와 자정(子政)과 내가 같이 참여했다. 서당(書堂)에 있게 되어 휴가(休暇)를 내리는 命을 받게 되니, 한때 영광(榮光)스러웠다. 이로부터 우리三人은 벼슬 지내기를 대략(大略) 서로 같이 했다. 쫓末年에 이조좌랑(吏曹佐郎)이 되고 명년(明年)에 어사(御史)로서 호남(湖南) 땅에 살기 어려운 백성을 구제(救濟)하였고 이때부터 이조(吏曹) 병조정랑(兵曹正郎)과 양사(兩司)의 지평(持平)과 헌납(獻納)과 홍문관교리(私文館校理)를 지내고己丑에 옥사(獄事)가 일어나 나와 같이 국청(鞠廳)의 낭관(郎官)이 되었다가 평난공신(平難功臣)으로 책봉(策封)받고 또 장령(掌令) 집의(執義) 사간(司諫) 응교(應教) 전한(典翰) 직제학(直提學)을 역임(歷任)하고 辛卯년에 승진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를 했고 얼마 있다가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옮기고 좌승지(左承旨)로 옮겼었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종(宣宗)께서 西쪽으로 파천하여 금교역(金郊驛)에 이르렀을 때 子政이 말씀드리기를「宗社(宗社)의 위판(位版)이 아직도 개성(開城)에 있다 하니, 上께서 곧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삼고 가서 모셔 오라」하여 곧 바로 달려가서 城 밖에 이르니, 주민(住民)들이 달려가며 말하기를「적장(敵將)이 왔으니 헛되이 죽음을 당할 뿐 아무 이로움이 없을 것」이라 했다. 이 말을 들은 채 않고 곧바로 가서 돌아보지도 않고 목주(木主:신주로 모시는 패)를 모셔 와서 평양(平壤)까지 가게 되니, 벼슬을 올려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하다. 적세(敵勢)가 날로 급(急)하니 宣宗께서 장차 平壤을 떠날 때 양관(兩宮)이 길을 갈라서 가게 되니 나는 병조판서(兵曹判書)로서 임금을 뒤흔고 西쪽으로 떠나고 子政은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중전(中殿)을 호위하고 東宮을 뒤흔고 자산(慈山)으로부터 순천(順天) 개천(价川) 희천(熙川)을 거쳐 장동(長洞) 평전(平田)으로 들러 곡산(谷山)에 이르러 부친상(父親喪)을 듣고 돌아가다. 계사년(癸巳年)과 갑오년(甲午年) 연 삼년(連三



年)에 걸쳐 기용(起用)할 것을 명(命)했으나 상례중(喪禮中)이라며 굳이 사양하기를 변함없이 없으니, 上께서 특별히 옳게 여기시고 제수(祭需)를 내리시어 예(禮)를 베푸시다. 삼년상(三年喪)이 끝나니,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배(拜)하시고 나아가서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다. 이때 임금의 명령이 있어 나가 뵈이니, 上이 불러 말씀하기를「西行할 때 喪을 당한 비참(悲慘)했던 일은 내가 절대 잊지 않는다」하시니 子政이 울면서 그때 시국형편(時局形便)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황해도(黃海道)에 들어가 먼저 효자(孝子)와 열녀(烈女)와 모든 장사(將士)들이 공(功)을 세우고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물어서 다 응분의 표찰(表彰)을 하였다. 때마침 조정(朝廷)에서 처음으로 사회질서(社會秩序)를 위(爲)한 법(法)을 정(定)하는데 아직 확정(定)이 되지 않으니, 탐관(貪官)과 교활한 아전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구 굶어먹고 있는지라 子政이 아독(牙蠶) 감사의 기(旗)를 세워 비록 대관(大官)의

의범(儀範)이 있었으나 그 행장(行裝)은 오직 일숙(一束)의 서책(書冊)뿐이었다. 자신(自身)의 몸가짐과 아랫사람을 단속하는 데 엄정(斬)하여 하나도 私(私)가 없는지라 모든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손을 거두고 감(敢)히 불법(不法)한 일을 못하더라. 얼마 후에 병(病)으로 사임(辭任)코져 하니, 유서애(柳西厓)가 비변사(備邊司)로 있으면서 말하기를,「제신(才臣)을 구(求)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맑기가 이모(李某)같은 사람을 어디서 얻어 오겠는가」 하였다.

宣宗께서 과연 子政이 국사(國事)를 위(爲)하여 진심(盡心)하는 것을 알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求하기가 어려움을 걱정하다가 공이 두 번 사임(辭任)코져 하니, 비로소 허락하였다. 다음 조정(朝廷)에 들어와 광림군(廣林君)이 되었다. 子政이 도승지(都承旨) 이순인(李純仁)의 따남에게 장가들어 三男을 낳으니, 玄聘 元聘 두 兄弟는 蔭으로 벼슬에 補했는데 아들이 없고 그의 막내 진담(眞聃)은 사인(士人)인데 二子를 낳으니 다 어리다. 승지공(承旨公)께서 임금의 행차를 따르다가 도중

(道中)에서 별세(別世)하니, 이때에 와서 여산(礪山)에 둘러다가 장사(葬事)키로 해서 子政이 들어가 장례(葬禮) 치루기로 하였는데 마침내 그 장지(葬地)에서 세상을 뜨다. 子政의 휘(諱)는 정립(廷立)이요, 자호(自號)를 계은(溪隱)이라 했다. 처음에 子政이 같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학(道學)으로 向해서 울곡(栗谷)과 우계(牛溪)의 문하(門下)에서 공부(工夫)하여 학문(學問)을 하는 방법(方法)을 배우고 두루 一世의 명사(名士)와 널리 사귀어서 모두 다 수양하는 데 힘이 되었고 본래 성색(聲色)과 화리(貨利)에 욕심을 갖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아주 버리거나 금제(禁制)하는 법이 없었고 스스로 그 옳고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나 사람과 더불어 서로 경계가 없어서 終日토록 서로 이야기를 하여도 언제나 어긋남이 없고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남의 한 가지를 잘한 일을 들으면 문득 공경하고 탄복하여 그대로 두지 않았으며, 官에 있어 일을 만났을 때는 먼저 그 의(義)나

이(利)나를 살펴서 利로운 것 같으면 급(急)히 일어나 피(避)해서 장차 自己에게 큰 해나 끼쳐 망(亡)치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義로운 것 같으면 용맹하게 달려가서 좋고 욕심나는 것 같이 하여 공경스럽고 공경스럽게 하며 조심성 있게 다루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생겨 종신(終身)토록 누(累)가 될까 두려워했다. 부모(父母)를 섬기는 데 지극히 효도하여 出入할 때면 반드시 (고)告하

고 조석(朝夕)으로 반찬을 살펴보며 아침부터 뒤흔고 저녁까지 떠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제매(弟妹)들이 가난해서 의지할 데 없는 것을 가엾게 여겨 전토(田土)의 미호(美好)한 것을 골라서 우선 먼저 주고 생산(生産) 작업(作業)에는 문득 못 본 척하며 독서(讀書)하고 저문(著文)함에 있어서는 항상 모자라는 듯하며 고요히 일실(一室)에 처(處)하여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점심때가 되도록 밥 먹을 줄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으니 세상 사람이 초현(草玄:楊雄의 著)에 비유하더라.

명(銘)하여 왈(曰)

온화(溫和)한 듯 엄숙한 듯 저 옥(玉)이 박(璞)으로 있는 것인가.

으스스한 듯 서늘한 듯 저 이름 산 구렁에 있는 것인가.

廣州 땅 남쪽 구천(狗遷: 현 九川) 아래쪽에 사척(四尺) 높이의 봉분(封墳)이 있으니 이것이 곧 그대의 현택(玄宅)이로다.

- 문충공(文忠公)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撰 -

지파도유사글 좌통례공파

“左通禮公派宗會 年報” 를 펴내며



종사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지파 종회가 그동안 일해 온 종사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사기록집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이번에 종회사무실에 오래 보관되어온 문서들을 총 정리하여 2016년 12월에서야 미흡하나마 “左通禮公派宗會 年報”라는 이름의 종사기록집을 발간하였다.

본 연보(年報)에는 종회 결성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과 초대부터 현재까지 집행부와 임원 및 대의원 현황, 그리고 선조님들의 유산과 유물현황, 연도별 현양사업 추진상황 등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종회의 기반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1983년부터는 시제 참석자와 제관 분정표, 선선록(1941~1985)을 통하여 참석종인의 역할과 거주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연도별 결산서를 수록하여 종재의 증식과정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보를 편찬하면서 알게 된 과거로부터 종회로의 변천과정을 보면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종회의 운영 실태와 조상을 모시는 절차도 다음과 같이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종손중심으로 후손과 방손들이 일년에 한 번씩 모여 묘사행사를 수행함이 제도화되어 있던 것이 종회대표중심제로 전환되었음을 들 수 있다. 당시에는 묘사 후에 종택 또는 묘막에서 종친들로 하여금 필요하거나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을 협의해 왔던 일들이 종친대표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임원회의 또는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거쳐 종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 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재산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논밭 그리고 부동산만이 종재인 줄 알았던 고정관념에서 동산도 종재로 운용될 수 있다는 관념의 변화이다.

세 번째는 재산의 유지관리의 방법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논과 밭 그리고 산같은 자산이 산소관리인 한 사람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부동산이 동산화가 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 관리조직을 만드는 등 계획적인 종사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종손 또는 문중의 웃어른이 주관하고 관리 유지해 오던 방식에서 종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종사를 운영하는 종회 운영방식으로 변천되었다는 것이다.

1969년 가을 제관회의(祭官會議)에서 참석한 종인들의 동의를 얻어 처음으로 觀察使公 宗會가 만들어 졌으며 초대 도유사로 수영(壽英)씨와 임원6명이 선임 되어 종사를 운영해 오다가, 1983년 5월26일 지파 종회로 좌통례공파 종회를 분리하고 좌통례공파 초대 도유사로는 승재(承載) 도유사를 선임하여 규약을 제정하는 등 지파종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선록(1941~ )을 통해 당시 시제 제수기 《乾魚脯(文魚), 6果(棗, 栗, 林檎, 柑子, 梨, 柿)》를 두어 제물을 준비하였으며 사과를 임금(林檎)이라 하였고, 감자(柑子)라 하여 굴이나 유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칠곡 상태(相能) 祭官께서 양은제기(洋銀祭器) 二十介를 기증(寄贈)하였음과, 辛巳(1941년) 時祭때 부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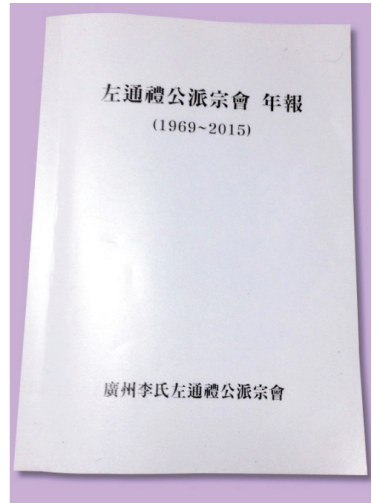
광래(廣來) 祭官과 함께 황해도 해주에서 여러분이 참배(參拜)하여 日帝 강점기(1948년)까지 參拜 往來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보에는 아래 내용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1985년 처음 주택을 구입하여 종회운영자금으로 활용된 내용
- 1993년 임피 묘역아래 증모제를 신축한 내용
- 1998년 임피산소 주변 신도로 계획에 따른 산소보존을 위한 노력.
- 2003년 홍수피해로 임피산소에 콘크리트 옹벽을 조성.
- 좌통례공파 후손 종원수 17,000여명을 지별로 세분하여 정리.

이상과 같이 많은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정리되었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미흡하나마 우리 종회의 보화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앞으로 지속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연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좌통례공파종회 도유사 선래 -

산악회 신년 첫 산행으로 북한산둘레길 다녀와...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재석)는 지난 1월15일(일요일) 금년 들어 첫 산행으로 북한산 둘레길을 다녀왔다.

날씨는 맑았지만 체감온도 영하 15℃의 추운 날씨 탓인지 평소보다 적은 12명의 회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경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에서 모인 일행들은 지난번 다녀온 북한산 둘레길의 연장코스인 마실길코스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일행은 이말산으로 올라 북한산의 멋진 경관을 바라보며 진관근린공원방향 숲길을 답소를 나누며 북한산 둘레길 9구간(마실길)에 접어들었다.

하산코스는 군부대 방향으로 정하고 묘역길을 통해 내려와 진관사에 들려 경내를 구경하였다.

진관사는 북한산(삼각산) 서쪽 기슭에 있는 조계종 소속 고려시대의 고찰로, 불암사, 삼막사, 보개산 심원사와 함께 조선시대에는 한양 근교

의 4대 사찰 중 하나였다.

진관사가 창건된 배경은 고려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은 절이라고 전해진다.

경내 관람을 마친 일행은 둘레길로 내려와 인근에 있는 56사단 복지관 식당에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 점심식사를 나누었으며, 이날 식사는 신임 재석 회장이 제공하여 참석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식사를 끝낸 후 PX에 들려 각자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부대를 나와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산악회는 2월 산행도 북한산으로 정하고 모임 장소는 역시 구파발역 1번 출구로 하였으며, 점심식사는 산악회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산악회 총무 성수記 -



# 사간원 대사간 이극규 상소문 (2)

## (司諫院 大司諫 李克圭 上疏文)

### "연산2년병진(燕山二年丙辰, 1496년) 11월23일 克圭가 올린 上疏文"



데저 임금은 크기는 하늘이요 높기는 신(神)이며 그 위엄은 뇌정(雷霆)입니다. 임금이 진실로 먼저 간함을 거절할 마음이 있다면 대간(臺諫)이 진언하면 곧 말하기를 '새책(塞責)<sup>4</sup>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며 시종이 선한 말을 하면 '명예를 좋아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궁지에 빠질 말로 물으며 대답하기 어려운 말로 힐문할 것인즉 신하들로서 자기 몸을 아끼려는 자가 많고 녹만 유지하려는 자가 많으니 어찌 괴롭게 하늘에 항거하고 신을 저촉(舐觸, 축신(觸神))하면서 뇌정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엄을 거슬러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라를 중흥하는 임금은 상을 주어 가면서 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부터 임금은 누구나 다스리는 임금이 되려고 하지만 항상 어지럽게 되며 누구나 밝은 임금이 되려고 하지만 항상 혼암(昏暗)하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간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의 덕이 成湯, 高宗과 같은 성인에 모자람이 없는데 간함을 좇는 도량은 아직도 다 성탕, 고종의 순탄함만 같지 못하니 신등은 그오기 의혹됩니다. 즉위하신 이래로 대간의 복합(伏閣)<sup>5</sup>이 거의 없는 날이 없건만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직도 난색을 보이시니 성왕(聖王)께서 따르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하는 미덕이 아닌 듯합니다.

옛날 대순(大舜)은 태화(泰和)의 치(治)에 이르렀으니 아무 일도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으나 백익(伯益)은 법도를 잃음이 없을 것을 경계하였고, 대우(大禹)는 단주(丹朱)<sup>6</sup> 같이 거만함이 없으라고 경계하였습니다.

대순 같은 성인으로서 어찌 법도를 잃거나 단주와 같이 거만하겠습니까마는 그 신하들의 경계하는 바가 이러하였습니다. 순 임금으로서도 경계하여야 할 것인데 하물며 순임금만 못한 후세의 임금이겠습니까. 우리 태종조에 어떤 조신(朝臣)이 경계하여 아뢰기를 '신우(辛禰)<sup>7</sup>와 같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태종의 신공성덕(神功聖德)이 成湯, 무왕(武王)<sup>8</sup>과 가지런한데 어찌 이런 비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신하의 말이 미친 것이 아니면 망령된 것이니 당연히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이 신하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상까지 주었습니다.

聖王의 도량은 천지(天地)와 같이 크시니 우리 조선 억만년의 한 없는 기업(基業)이 분명코 여기에서 연유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하의 가법(家法)이니 공경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신하는 임금에게 잘 간하여야 하는데 그 간한 것을 임금이 받아들여주지 못하게 한다면 참으로 잘 간하는 신하가 아니요, 임금은 간한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신하로 하여금 반드시 간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 참으로 간함을 받아들이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간함을 좇는 도량을 넓히시고 신등은 참으로 잘 간하는 신하가 되고 전하는 참으로 간함을 잘 받아들이는 임금이 되신다면 이 나라의 더 없는 다행일까 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는 조금 굽어 살피소서.

옛날에 구양자(歐陽子)는 말하기를 '신하로서 말을 다할 수 있는자는 감히 말하기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으며 임금으로서 간함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항상 듣기 어려운 말을 들으려 한다. 그런 후에야만 아래서는 실정을 숨김이 없고 위에서는 들음을 막는 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다하고서 화를 입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경계한 바이지만 말하는 책임에 있는 신하들이 어찌 잠잠하게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전하는 춘추가 젊으시고 처음으로 임금의 자리(1495년)에 임하시니 이야말로 성조(聖朝) 응체(隆替)의 근본과 종사(宗社) 안위의 기틀과 사방의 다스리고 어지러워질 수 있는 사단과 만 백성이 잘 살고 못 사는 시초와 군자 소인이 소멸하고 성장하는 갈림과 천명(天命) 인심이 흩어지고 합하여지는 까닭이 바로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대기(大器)가 이미 안정되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사방이 이미 다스려졌다 하시지 말고 어지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신등이 말하는 몇가지의 일이 오환(迂闊)하다 하시지 말고 더욱 유의하여 주소서.

아직 보지 못한 일을 조심하시며 아직껏 듣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시어 거쳐하시는 데에서는 일정한 생각을 가지시고 움직이실 때에는 잘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면 우리 道의 성대함과 풍속의 순후(淳厚)함을 날을 지정할 정도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신등이 전하를 요순(堯舜)같으신 임금이 되시

기를 기약하면서 혹시 털끝만 한 실수라도 있을까 염려하여 감히 어리석은 회포를 드러내는 것이니 전을(戰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하고,

다시 아뢰기를 '문무 신하가 시사(試射)하여 가자(加資)하는 일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또 노사신(盧思愼) 부자의 상피(相避)하는 일은 어제 비록 하교하시기를 전례가 있다고 하셨으나 봉상(奉常) 종묘(宗廟)는 다만 제사 등의 일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병조(兵曹)에는 병권(兵權)이 있고 군기시(軍器寺)에는 군무(軍務)가 있으니 봉상 종묘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의 뜻은 매우 좋다. 내가 그것을 써 두고 보아야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요순같은 임금으로 되게 하려 한다면서 나를 성종과 같지 못하다고 한다. 무릇 사람의 기질이란 맑고 흐름이 서로 다른 것이니 어찌 다 같을 수 있겠는가. 시사하여 가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이르기를 문무를 함께 쓰는 것은 장구(長久)의 도라고 하였는데 무사만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상피하는 일은 들어 주지 않는다'하셨다.

어제(御製)의 시를 내렸다. 기침 번열(煩熱)이 잦고 피곤한 기분이 계속되어 이리저리 뒤지며 밤새껏 잠 못 이루네. 간관들 종묘사직 중합은 생각하지 않고 소장을 올릴 때마다 경연에만 나오라네. 그리고 전교하기를 '감히 시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표시하는 것뿐이다. 숙직하는 승지는 이것을 보라' 라고 하셨다. [終]

- (註)
- 1) 孟子 이루장(離婁章<離婁는 옛날 눈이 밝은 사람의 이름>)에 나옴.
  - 2) 仲虺는 은나라 탕왕(殷 湯王<成湯>)의 재상.
  - 3) 傳說은 殷나라 고종(高宗)의 어진 재상.
  - 4) 塞責은 책임을 말하거나 책임을 완수 하는 것.
  - 5) 伏閣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조신이나 유생이 대궐문에 이르러 엎디어 상소하던 일.
  - 6) 丹朱는 요(堯) 임금의 아들. 거만하고 싸다니며 놀기만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堯가 舜에게 전위(傳位)하였다. 순임금 때의 신하들은 순임금에게도 혹시 단주같이 오만하고 법도를 잃는 일이 없을까 하여 이렇게 주의의 말로 권고 한 것임.
  - 7) 辛禰는 고려조 말기의 우왕(禰王)임.
  - 8) 武王은 주(周)나라의 초대 임금.

# 불천지위(不遷之位)에 대하여



## 1. 정의(定義)

조선 중기이후에 접어들면서, 조상이 죽으면 품계와 무관하게, 4대 奉祀가 일반화 되었는데,

이는 한 집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조상의 범위를, 가장 넓게 4대까지로 인정하여, 제사를 지

내고, 5대가 되면 친진(親盡) 친함이 다하였으므로 5대조 이상의 조상. 반대는 친미진(親未盡)으로 아직 친함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모~고조(高祖)이라 하여, 신주(神主)를 땅에 묻어 조매(祧埋) 혼백을 무덤 앞에 묻는 일)하게 되며, 이후로는 묘제(墓祭, 세일사(歲一祀) 등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가에 큰 공훈(功勳)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은 분에 대하여, 4대가 지나도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모시면서, 백세불천(百世不遷)의 기제(忌祭)를 지내도록 국가 또는 유림, 문중으로부터 허락된 신위(神位)가 있으니, 이를 불천지위(不遷之位) 또는 불천위(不遷位), 부조위(不祧位)라고 하며, 체천위(遞遷位) 체천하게 되는 조상)의 반대 개념이라 하겠다.

## 2. 역사(歷史)

고대중국의 분봉제(分封制)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데, 제후국(諸侯國)시절에 최초로 토지를 받고, 제후에 봉해진 사람을 태조(太祖)로 삼아 종묘(宗廟)에 모시고 불천위로 삼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후 후계(後繼) 왕 중에서도 탁월한 공덕을 세운 사람은 불천위로 그 공덕을 기리게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태종무열왕, 고려의 태조, 혜종, 현종 등이 불천위로 종묘(宗廟)에 모셔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묘우(廟宇)를 짓고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받들어 모시는 풍습은, 삼국시대 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조에서는 현재 왕의 5대가 되어, 정전(正殿)에서 별도의 사당인 영녕전(永寧殿)으로, 신주를 옮겨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조정신료들의 공론에 의해 불천위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양반 사대부 가문에서는 고려 중엽부터 불천위를 모시는 제도가 실행되었다고 보는데, 조선 초기까지는 주로 임금의 예조에 명해 공신들을 국불천위(國不遷位)로 임명하였다. 그 뒤 중기 이후에 성리학이 뿌리를 내리면서, 서원과 향교가 학덕이 높은 사람을 예조에 상소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아 불천위가 되는 향불천위(鄉不遷位)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후기로 오면서는 추앙할 만한 조상이 있는 문중의 자손들이, 뜻을 모아 불천위로 모시는 사불천위(私不遷位)도 등장하게 되었다. 국불천위는 왕과 마찬가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소수에 불과하고, 향불천위도 엄격하게 결정됐으나, 후기에는 향불천위와 사불천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구분도 불명확하게 혼재하면서, 다분

히 의례적인 행사로 변질되고 남발되어, 권위와 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 3. 종류(種類)

일반 사가(私家)의 불천위는, 학덕과 충절의 공적이 있고, 성인의 삶을 실천한 군자에 대하여, 대개 사망 직후, 또는 체천(遞遷)시에 조정에서 시호(諡號)를 내리고, 후손들이 영구히,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다. 해당 인물이 사망한 지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불천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불천위가 결정되면, 임금이 직접 제관을 보내, 장례를 치르게 하거나, 예조에서 제관을 보내 제사를 지낼 전답(田畵)과, 제구 및 제물 혹은 영정을 교지(教旨)로 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조와 후손에게 벼슬을 주기도 하였으며, 이에 후손들은 불천위 선조를 위한 별묘(別廟)를 세우기도 하였다. 불천위는 크게 3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불천위(國不遷位)는 나라에서 특별히 정한 것으로, 3가지 불천위중 가장 권위가 높다고 하겠다.

### 1) 국불천위(國不遷位)

국불천위는 국가에 지대한 공훈을 세운 공신과, 학문이 높아 문묘에 배향된 선현 등, 시호(諡號)를 받은 2품 이상의 관리가 대상이었다. 백성으로부터 추앙받는 인물 중에서, 조정의 논의나, 임금의 명으로 예조의 심의를 거쳐, 국왕이 봉작(封爵)과 시호(諡號)를 내리고, 교지로서 정하였다. 대부분이 공신, 선현, 왕자, 부마 등이었다. 경국대전 봉사조항 세칙에는, 공신은 비록 4대가 지나도, 신주를 옮기지 않고, 따로 방 하나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즉 부조묘(不祧廟)를 세우고, 만세불천(萬世不遷)의 제사를 모시도록 하는 경우인데, 제사(祭祀) 때에는 나라에서 제관(祭官)과 제물(祭物)을 보내고, 그 후손에게는 은일(隱逸)로 벼슬을 제수하기도 하였다.

### 2) 향불천위(鄉不遷位)

향불천위는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라고도 한다. 유학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충절(忠節)이 높은 분을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數) 이상의 유림이 혼쾌히 찬성하여 인정한 선현(先賢)이다. 즉, 시호(諡號)를 받은 관리로서, 지역적 인물이 그 대상인데, 후기에는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 3) 사불천위(私不遷位)

사불천위는 문중불천위(門中不遷位)라고도 한다. 인물의 판단 기준은, 대상(對象)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시호(諡號)도 받지 못하고, 학자로서도 크게 명성을 떨치지 못했지만, 문중 차원에서 자기 조상 가운데, 한 분(현조(顯祖), 입향조(入鄉祖) 등을 불천위로 모시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문중에서 발의하여, 지역 유림의 동의와, 추인을 받아 불천위로 모시는 것이다. 주로 조선후기에 문중의 훌륭한 인물을, 불천위로 모시고 싶은 후손들의 염원과, 지역 유림사회에서,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림에서는 각 지방마다 덕행이나 학문을 기릴 만한 이가 있으면, 이런 분을 향현사(鄉賢祠)에, 별도로 모시고 유림의 이름으로 제향을 올리는데, 이를 채례(采禮)라고 한다.

## 4. 제의례 공간(祭儀禮 空間)

불천위 제도는 불천위 제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데, 불천위제사는 “불천위 대제(不遷位 大祭)” 또는 “불천위 기사(不遷位 忌祀)”라고도 한다.

불천위 조상은 봉안(奉安) 공간에서도, 각별한 대우를 받는데, 우선 4대 조상을 모시는 가묘(家廟)와 달리, 독립된 별묘(別廟)에 안치된다. 만약 별묘를 세울 형편이 되지 않으면, 가묘에 함께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도 불천위 조상은 “이서위상(以西爲上)”의 고례(古禮) 관념에 입각하여, 가장 우위로 인식되는, 서쪽에 감실(龕室)을 별도로 마련하여 봉안하게 된다.

또한 불천위 위패(神主)는 그 대상에 따라, 종묘(宗廟) 왕이나 왕족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문묘(文廟) 유학의 종통을 세우고 정신적 지주가 된 인물의 위패를 모신 향교와 서원의 사당, 가묘(家廟) 종가의 사당으로서 뛰어난 공적이나 학덕으로 그 집안의 종통을 잇게 한 인물의 위패를 모신 곳에 봉안된다.

불천위의 신주는 밤나무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땅속의 씨앗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밤나무처럼,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신주(神主) 전신(前身)의 분면(粉面)에는 후일 봉사손이 바뀔 것에 대비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아교를 갠 분칠을 하여, 아무리 많은 글자라도 한 줄로 쓰게 되며, 후신(後身)의 함중(陷中)에는, 망자(亡子)의 정체성 즉 품계, 본관 성씨, 이름, 자 등을 적는데, 이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 가묘는 부조묘(不祧廟)와 가묘(家廟)와 감실(龕室)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 별묘의 사당문은 3개이지만, 가묘의 문은 하나이며, 선비문화가 전수되고 있는 경상도지방에서는 대부분 단청(丹靑)을 하지 않았다. (현재는 방재, 해충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단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5. 종가(宗家)의 주요 조건(條件)

1) 보통 종가는 시호를 받는 등, 명망 있는 조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파종가(派宗家)는 불천위(不遷位)로 추대된 현조(顯祖)를 모셔야만 한다. 서거한 공신에게 내려지던 시호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은, 시호가 있어도 불천위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친미진(親未盡, 父母~高祖)의 기제 또는 묘제(墓祭)시, 주인(祭主)이 모든 신위(神位)에게, 초



헌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불천위 조상에 대하여도, 묘제는 물론이고, 기제(忌祭)를 지내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祭主)인 종군(宗君)이 초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문중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문중회의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협의하여 초헌을 정하기도 한다.

3) 불천위 제향시 제사주관자는 비록 관직은 없어도, 사모관대(紗帽冠帶)하여 3품관(三品官)의 옷을 입어도 무방하다 하였다.

4) 불천위는 당사자의 배우자(再娶 包含)도 같이 모신다.

※ 체천위(遞遷位)를 모시는 만집은 “큰 집”이라 부르고, 그 집의 맏 어른은 “주손(曹孫)”이라 칭한다.

- 유불천위(儒不遷位) 종가의 맏 어른은 “종손(宗孫)”이라 칭하지만, 국불천위(國不遷位) 종가의 맏 어른은 “종손(宗孫)”이 아니고 “종군(宗君)”이라고 칭한다.

- 종가를 칭할 때 “○○씨 종가”라고 부르는데, 불천위 종가는 휘자(諱字)나 호(號)를 앞에 붙여 ○○종가라고 칭한다. 즉 종가를 이룰 때 “○○의 종가(宗家)”이지 “○○성씨의 종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 6. 특징(特徵)

1) 5대조 이상의 조상은, 세일사(歲一祀, 墓祭)만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불천위에 오르면, 영

구히 기제사는 물론, 묘사(墓祀)나 시제(時祭)를 지낸다. 그러나 가문(家門)에 따라서는 기제사(忌祭)만 지내는 경우도 있다.

2) 불천위는 그 자손들이 생존하는 한, 분묘와는 별도로 부묘(不祧廟) 또는 별묘(別廟)라고 부르는, 사당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3) 불천위제사는 불천위로 정해진 뒤, 3년째부터 지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4) 제사의 절차는 가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제사의 절차에 준하여 지낸다.

5) 문중(門中)내 한 파(派)의, 파조(派祖)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천위제사는 종가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은 물론이고, 불천위의 자손이 되는 원근의 일가(一家)까지도 참여한다. 또한 학문적 연관을 지닌 지방의 유림이나, 유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인(祭主 宗孫)이 주제를 하되, 문중뿐만 아니라, 유림에서도 제관이 선정되기도 한다.

### 7. 결어(結語)

이와 같이 불천위와 그에 대한 제사는,

1)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정하는 공훈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의 지위에 따라, 서거(逝去)한 뒤에도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구조를 지닌다.

2) 또한, 불천위의 생존시 업적이거나, 지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상숭배가 아니고, 기념이 되거나 추도한다는 성격을 지닌

다.  
3)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문중의 입장에서 보면, 조정이나 유림에서 봉사할 만한, 위대한 선조를 가졌다는 영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중성원들의 단결과 동질감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위세와 우월감을 조장시켜 주기도 한다. 그래서 불천위가 있는 문중에서는 명조(名祖)를 두었다는 점을 자랑으로 삼게 된다.

4)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현재 495위의 불천위가 조사 확인되었으며, 조선조 500여년 동안에 국불천위의 명예를 가진 인물은, 문묘에 종사(從祀)되신 동국 18선현을 포함하여, 79위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경북 지역의 경우 135위(안동지역에만 47위)가 있고, 경북 지역의 불천위 종가 종손모임인 “영종회(嶺宗會)”에는 109위의 종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 내 불천위 종가를 방문 조사하여, 집대성한 144위의 보고서(실제 360여 위로 추정)를 발표한 바 있으며, 산하(傘下)에 “경기도불천위문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천위 제현(諸賢)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청렴과 근검한 삶을 살았으며, 학생(學生)과 덕생(德生)을 쌓는 등, 후세 사람들에 사표(師表)가 된다고 하겠다.

〈경기도불천위문중협의회 자문위원, 문경공파 종회 柱梟〉

## 창순 전 대중회문화유사 “유촌만필 80년” 발간 배포

좌의정공파 종회(21대손) 창순(昶淳: 세) 대중회 전 문화유사께서 40여 년간을 종사에 몸담아 오면서 집필한 글과 주간스포츠 신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연재하였던 낙시칼럼 등을 모아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柳邨漫筆 80年”을 발간, 각 지파종회와 많은 종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창순 유사는 30대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전국의 2천여 사찰을 순회하며 “사찰요람”을 쓴바가 있는데 이때 민속학을 접하게 되어 전문 민속학자로 서게 되었으며 그 후 종사에 몸담아 좌의정공파종회 파보를 수찬하였고, 광주이씨 대중회 상임유사로서 대동보 편찬 시 주무역할을 담당하는 등 종회 운영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주요 저서로는 종사 운영의 길잡이가 되는 “광주이씨 보화총서”가 있으며 금 번 발간한 “유촌만필 80년”은 그동안 저자가 써온 많은 글들을 장춘(長春) 대중회 전 문화유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한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하게 된 것으로 책의 제목은 본인의 아호인 유촌(柳邨)과 8순이 넘어 간행한다는 뜻의 80년을 넣어 제명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 한은(漢隱) 용준(容俊) 선생 고전서적 발간 기증

참판공파 용준 전 도유사께서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고전서적 4권을 집필하여 금년 1월 말 각 지파종회에 기증 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서적은 사자소학(四字小學), 추구(推句), 동몽선습(童蒙先習), 대학(大學), 증용(中庸),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한 책으로, 논어(論語), 맹자(孟子), 목민심서(牧民心書)를 각권으로 모두 4권을 발간한 것으로, 저자는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공부해온 이 책들이 요즘같이 인성이 매 말라가고 있는 현실에서 후손들에게 동양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의 절실함을 느껴 오랜 기간 동안 집필해 왔으며 자녀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본 서적은 부수를 제한적으로 발행한 관계로 여유분은 없으며, 대중회 홈페이지의 종원사이트에 링크(연결)된 “사천정사(泗泉精舍)”란 용준 전 도유사의 카페에서 전자북(E-Book)으로 제공되고 있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 선현의 유물과 유적지를 찾아



구미시 인의동에 거주하는 민속학자 장화진 씨는 기억력도 뛰어나 거니와 경북 일원에 걸친 역사 지식이 해박하다. 명문 인동 장씨(仁同張氏) 가문에 대한 자부심위에 장문(張門)과 광이 문종과의 누대에 걸친 흔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뿐더러 경북 일원에 널려있는 선현의 유적지나 유품 등에 대한 소개와 안내에 적극적이다.

## - 선조의 유적지 찾아주기

좌의정공(克均) 선조께서 유배 가시어 최후를 마친 인동의 유배지를 찾아주어 후손들로 하여금 역사의 현장에 이르게 하고, 공의 증손인 진사공(振慶)이 상주의 명문 상산김씨 때에 처가살이를 할 때 손주인 한음(德馨)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상주의 옛 집터도 안내 했고, 그 후 상산김씨 부인의 묘가 경기도로 이장 되었으나, 아직도 상주의 어느 산마루 유허지(遺虛地)에 반쯤 묻혀져 있는 묘비도 찾아 주어 후손들로 하여금 감회를 새롭게 해주었다. 이에 더하여 인동 장씨 문중에서 보존해 온 사제곡(莎堤曲) 원본에 얽힌 일화를 들려주고, 장씨 문중의 진사 장대임(張大臨)의 부인이 된 한음 증손녀와, 같은 문중으로 출가한 한음 고손녀의 묘소까지 안내하는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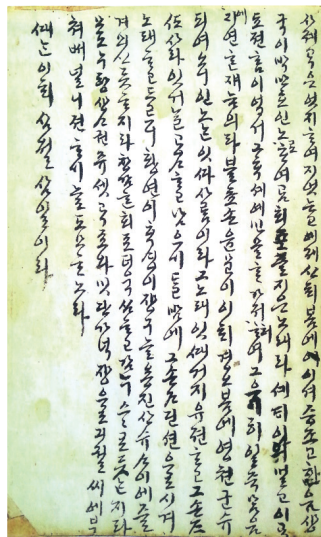
## - 노계 박인로의 「사제곡」 관련

노계(蘆溪) 박인로의 사제곡은 한음과 노계 공히 51세 되던 해인 1611년 신해년 봄, 머나먼 천리 길 영천으로부터 윤길산 아래 용진 사제촌(莎堤村)의 한음 별서(別墅)를 찾아온 노계가 윤길산을 배경으로 한 빼어난 산수의 풍광과 더불어 당시 한음이 처한 심경을 그대로 묘사한 가사이다. 노계는 한음과 그 지위는 사뭇 달랐으나 동년배 문우(文友)의 관계로서 한음이 4도도체찰사로서 경상도에 머무를 때에도 그를 만났으며, 한음의 영천 시조묘 참배 때에도 그를 찾을 정도의 관계였다고 한다.

『노계시집』은 한음의 증손인 영천군수 이윤문(李允文)이 그 지역에 사는 노계의 증손을 만나 선대에 이뤄졌던 한음과 노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로 회포를 풀었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그 당시까지도 노계의 문집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긴 이윤문이 조부인 선산부사 이여항(李汝璜)과 종조부인 상주목사 이여규(李汝圭)의 유품에서 찾아낸 노계의 여러 가사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 『蘆溪詩集李允文本(노계시집이윤문본)』이다. 이것이 인동 장씨 가문에 보존되어 옴으로서 오늘날의 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귀중한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 - 한음 증손녀의 한글친필

편찬자인 이윤문은 처남대부 사이인 인동장씨 육의당 장대임(六宜堂張大臨)과 함께 했다. 이를 계기로 장대임은 부인인 한음 증손녀의 입장에서 문집의 발문(跋文)을 써 풀이해 주니, 부인은 이를 받아 “사제곡은 옛지 허여 지었는고 예제 신해 봄에 이셔 증조고 한음상국이 박만호 인노로 허여곰 회포를 지은 노래라 세대 임의 멀고 이곡도 전함이 업서...”로 시작되는 한글 발문을 쓰게 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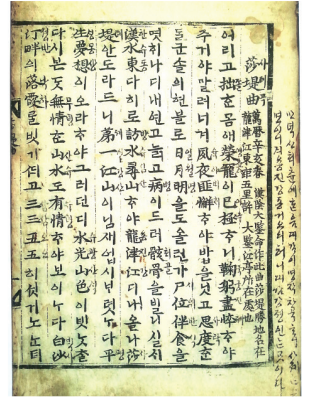


(한글친필 사진)

## - 사제곡의 첫 장 서문

노계의 「사제곡」 첫장 서문은 “만력 신해년 봄에 한음 대감이 명하여 이곡을 지었는데, 사제(莎堤)의 빼어난 경치가 있는 지명은 용진에 있고, 강동(江東)에서 5리쯤 되는 한음 대감의 강정(江亭)이 있는 곳이다(萬曆辛亥春 漢陰大監命作此曲 莎堤勝地名在龍津 江東距五里許 大監江亭所在處也)”로 되어 있다. 이 가사는 한음 별서

를 중심으로 윤길산과 맞은편으로 도도히 흐르는 용진강(龍津江)을 배경으로 한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에 더해 한음 대감의 심정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려렸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한음이 지었다는 설도 있다.



(「사제곡의 첫장」 사진)

## - 현존 최고(最古)의 관청 공문서식

『노계시집』에 첨부된 이 공문서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관청의 공문서식이라 한다. 현재 경북유형문화재 369호이며, 표지에 보이는 ‘康熙二十三年十二月’은 숙종 10년 1684년이다. 영천군수 이윤문이 문집 편찬을 주도했으므로 영천군의 공문서식으로 보인다.

『노계시집이윤문본』이 편찬 될 이 무렵 경상도관찰사 정재(靜齋: 聃明)공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아사(餓死)할 즈음 임금의 허락 없이 나라에 바칠 양곡 천 여석을 풀어 재해를 구제하니 백성들이 이를 기려 영사비(永思碑)를 세웠으니 당시 경상지방에서의 광이 선조의 활약상 모습이 눈에 선하다.



(「康熙二十三年十二月」 사진)

## - 역사의 승자는 기록에서

흔히들 “역사의 승자는 기록에 있다”고 한다. 우리 선현들의 지나간 유적지나 유품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후손들에게는 보물임에 틀림없다. 이에 그간 들고 살피본 유적지나 유품의 한 조각이나마 기록에 남겨 보고자 몇 자 적어 보았다.

- 충희공종회 도유사 겸 좌의정공파 도유사 명환 -

### 참고하세요!!

### 통설로 전해오는 조선8대 명당 묘소

1. 고령신씨 시조 신성용(申成用) 묘(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2. 광산김씨 김극뉴(金克紐) 묘(전북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
3. 廣州이씨 시조 이당(李唐) 묘(경북 영천군 북안면 도유리)
4. 동래정씨 시조 정문도(鄭文道) 묘(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화지산)
5. 동래정씨 정사(鄭賜) 묘(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6. 안동김씨 김번(金璠) 묘(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7. 청주한씨 중시조 한란(韓蘭) 묘(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8. 평산신씨 장절공 신승겸(申崇謙) 묘(춘천시 서면 방동리)

## 바르게 고칩니다.

### <제 319호>

- 5면 중앙 하 22행 : 증직(贈職) → 증직(贈職)
- 8면 중앙 하 4행 : 괄우선(괄우선) → 괄우선(郭右善) / 문익공(휘 원정) → 문익공(諱 元禎)

둔촌선생 명시선 28

次郭政堂立春韻 2首

차곽정당입춘운 이수

春光已箸柳梢頭樽酒盤蔬亦易求  
춘광이착유초두준주반소역역구

南畝吾知將有事但無歸去駕車牛  
남묘오지장유사단무귀거가차우

世事看來白了頭故將眠食更無求  
세사간래백료두고장면식경무구

悲歌甯戚真堪歎短布單衣起飯牛  
비가영척진감탄단포단의기반우

곽 정당의 입춘운을 차하다 이수

춘광(春光)은 어느새 버들가지 끝에 나붙었고,  
통술(樽酒)이나 나물(盤蔬)도 손쉽게 구하겠네.  
남묘(南畝)에는 곧 농사일 시작될 줄 내 알지만,  
돌아갈래야 타고 갈 거위(車牛)가 없는걸.

세상 일 꺾다보니 머리 다 세었는데,  
면식(眠食)밖에는 다른 일 다시 바랄 것 없네.  
구슬픈 노래 부른 영척(甯拓)은 감탄할 만도 하지,

[註]

1) 영척(甯戚) : 춘추(春秋) 위(魏)나라 사람.  
집이 몹시 가난해서 남에게 고용(雇用)되어 수레를  
끌며 호구(糊口)를 했다. 제(齊)나라로 가 수레 밑에서  
소를 기르다가 소뿔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환공(桓公)이 기이하게 여겨 관중(管仲)에게 명하여  
맞아들어 상경(上卿)에 제수하였다가 뒤에 상국(相國)  
이 됨. 그가 부른 노래는 반우가(飯牛歌)로 몇 절만  
전해지고 있다.

廣李 건강코너



이주일(李柱日)원장  
- 한의학 박사 -

도인(桃仁) · 홍화(紅花) [17]

- 이명(異名) : 끼무룻 · 수옥(水玉) · 지문(地文) -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몸의 각 관절(關節, joint)을 꺾일리거나 타박(打撲, contusion)에 의하여 멍(bruise)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교통사고 등의 사고에 의하여 골절(骨折, fracture)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연부조직(軟部組織, soft tissue)이 뒤틀리고 힘줄(腱, tendon)과 근육(筋, muscle)에 무리가 가며 골절의 경우엔 뼈(骨, bone) 조직이 손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상(受傷) 부위에 어혈(瘀血 - 쉽게 말해 '나쁜 피')이 생기게 됩니다.

'어혈'은 한의학 용어로 '혈액(血液)이 순환(循環)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혈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외상(外傷)에 의하여 생기기도 하지만 부인(婦人)들의 경우 월경(月經)이 순탄하지 않아 혈행(血行)에 지장이 생겨서 어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老人)들의 경우 원기가 쇠(衰)하여 혈액을 올바르게 추동(推動)하지 못하여 어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혈은 혈행(血行)에 지장을 주어 손상 부위의 회복(回復)을 더디게 하고, 기체(氣滯)를 야기(惹起)하여 몸에 통증(痛症)을 유발합니다.

도인(桃仁)은 복사나무 Prunus persica(L.) BATSCH와 산복사 P. davidiana(CARR.) FRANCH의 성숙(成熟)한 종자(種子)를 건조(乾燥)한 것입니다. 桃仁은 그 활혈거어(活血祛瘀)하는 효능(效能)으로 모든 어혈조체(瘀血阻滯)로 인(因)한 증(證)의 상용약(常用藥)이 됩니다. 방제(方劑)에 홍화(紅花)와 같이 배오(配伍)하여 그 효능을 증강(增強)시킵니다. 桃仁은 파어행혈(破瘀行血)의 약력(藥力)이 있어 사용 시 신중(慎重)하여야 하며, '아플라톡신(Aflatoxin, 곰팡이독소) 관리대상 품목'으로 한의사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약재(藥材)입니다.

홍화(紅花)는 국화과(菊花科)에 속한 잇꽃

Carthamus tinctorius L.의 꽃을 건조한 것으로, 7-8월에 꽃잎이 황색(黃色)에서 홍색(紅色)으로 변할 때 통상화(筒狀花)를 따서 음건(陰乾 - 응달에 건조시킴)합니다.

紅花는 활혈통경(活血通經)하고 거어지통(祛瘀止痛)하는 특장(特長)이 있어 각종(各種) 어혈조체(瘀血阻滯)로 인한 병증(病證)에 常用하는 약물(藥物)입니다. 紅花는 임상(臨床)에서 그 활용범위가 넓어 내과(內科), 부인과(婦人科), 외과(外科), 재활의학과(再活醫學科) 등의 활혈방(活血方)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紅花는 桃仁과 같이 사용하면 그 효과가 증강됩니다. 紅花는 소량(小量 즉, 1첩 당 1.875g 이하)을 사용하면 활혈통경(活血通經)하고, 대량(大量 즉, 1첩 당 3.75g 이상)을 사용하면 파혈축어(破血逐瘀)하고 최생하태(催生下胎)합니다.

※ 주의 : 반드시 한의사(韓醫師) 진단(診斷) 후(後) 사용하고, 증상 완화 시 바로 투약을 중지해야 합니다.

문의 :李家삼대한의원 (031) 742-1075

이달의  
明心寶鑑

有福莫享盡 福盡身貧窮 有勢莫使盡 世盡冤相逢  
유복막향진 북진신빈궁 유세막사진 세진원상봉

福兮常自惜 勢兮常自恭 人生驕與侈 有始多無終  
복혜상자석 세혜상자공 인생교여치 유시다무종

[해설]

복이 있어도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 진다. 권세가 있어도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은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는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에 있어 교만과 사치는 흔히 처음은 있으나 끝이 없다.

- 성심편(省心篇) 중에서 -

# 청·장년회 육성기금 조성현황

■ 2017년 1월26일까지 입금해주신 내역입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도유사	상임유사	임원	대의원	일반종원	계
총 책정액	26,500	4,900	800	2,600	2,880	500	38,180
대 중 회	20,000	1,000	800				21,800
지 파 종 회	사인공	500	300	100	30	30	960
	광릉부원군	500	300	300	400	100	1,600
	문경공	500	300	100	30	100	1,030
	광천부원군	500	300	200	60		1,060
	광원군	500	300	200	270	150	1,420
	좌의정공	500	300				800
	참판공	500	300	200	150		1,150
	좌통례공	500	300	200	390	50	1,540
	문숙공	500	300	200	30		1,030
	목사공	500	300				800
기타						10	10
합 계	25,000	4,000	800	1,600	1,360	440	33,200
달성율(%)	94.3	81.6	100	61.5	47.2	88.0	87.0

※ 1. 본 현황표는 1차(2016년)년도 목표 및 달성액입니다.  
2. 2017년은 2차년도가 되는 해입니다.

<청·장년회 활성화 및 육성책관리위원회 제공>

## 이달의

## 행사 계획

### 1. 광문회 2월모임

- 일 시 : 2월8일(수) 오후6시
- 장 소 : 명동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

### 2. 재경화수회 모임(2월15일)

- 일 시 : 2월15일 오후6시
- 장 소 : 대중회 지하회의실

### 3. 재경화수회 산악회 등반

- 일 시 : 2월19일(일) 오전10시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
- ※ 모임장소 : 3호선 구파발역 1번출구

### 4. 정암 이종훈선생 서거86주기 추모행사

- 일 시 : 3월1일(수) 오전10시30분
- 장 소 :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

##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b>12월 구독 및 찬조</b>			이용관	20,000	대전광역시 서구	이용구	50,000	경기도 양평군
이원교	20,000	서울시 송파구	이득래	20,000	경기도 의정부시	이명익	20,000	서울시 강동구
이만수	20,000	경기도 여주시	이범희	20,000	경기도 양평군	이건재	20,000	경기도 양평군
이화준	20,000	경기도 광주시	이번래	20,000	서울시 관악구	이병오	60,000	강원도 춘천시
이주석	20,000	경기도 광주시	이영환	2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주하	20,000	서울시 광진구
이주동	20,000	경기도 광주시	이현재	10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성수	20,000	경기도 부천시
마을회관	20,000	경기도 광주시	이영수	20,000	서울시 강남구	이갑수	20,000	서울시 송파구
<b>1월 구독 및 찬조</b>			이현재	2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좌운	20,000	서울시 동대문구
이주병	20,000	서울시 노원구	이수홍	20,000	경상북도 칠곡군	이용철	20,000	광주광역시 서구
이종국	20,000	충청북도 청주시	이영진	20,000	대구광역시 동구	이준희	2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근형	20,000	경기도 하남시	이종세	30,000	서울시 금천구	이길환	20,000	경기도 화성시
이명재	20,000	광주광역시 북구	침지사 공종회	20,000	충청남도 천안시	이종일	20,000	경기도 화성시
이용휘	20,000	서울시 강동구	이삼용	20,000	경기도 안산시	이종철	50,000	서울시 강동구
이정실	20,000	서울시 종로구	이용설	20,000	대전광역시 서구	이철수	20,000	경기도 하남시
이창선	20,000	전라남도 여주시	이수평	20,000	대구광역시 북구	이선기	20,000	서울시 강남구
이광래	20,000	전라북도 전주시	이영택	20,000	경상북도 포항시	이석수	20,000	서울시 동대문구
이영래	20,000	경기도 구리시	이훈익	20,000	경기도 수원시	이용석	2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용운	20,000	전라북도 순창군	이종주	20,000	경상북도 포항시	이종준	20,000	경상북도 구미시

##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원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중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20,000원 입니다.

지료용지가 없으시면 **기업은행 계좌번호**

**024-068156-01-019 이재진**으로 송금하시거나

**지료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료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중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17年 2月 1日

<제320호>

##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宰鎭

編輯人 : 李鍾鍊

主幹 : 李碩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